■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93-126.
http://doi.org/10.17948/kcs.2022..97.93

新羅 金志誠의 道教思想 受容과 그 特徵*

노용필(盧鏞弼)**

목 차

1. 緖言
2.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에 나타난 金志誠의 經歷 檢討
3.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에 나타난 金志誠의 道教思想 受容 樣相
4. 金志誠『老子道德經』및『莊子』受容의 思想史的 性格
5. 結語: 金志誠 道教思想의 특징과 그 思想史的 意味
—金仁問과의 비교를 통한 把握—

국문초록

김인문과 김지성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달성하기 전후한 시대에 42년이나 함께 생존했지만, 둘 사이에는 사회적 처지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은 唐에 의해 新羅王에 봉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고, 훗날 사망하였을 때 신라의 최고위 관등을 부여받았던 眞骨이었다. 이에 반해, 金志誠은 唐에서 皇室의 齋戒를 지낼 때 동참하는 직책을 지냈고, 귀국 후에는 執事部의 侍郎職을 지내다가 은퇴한 六頭品이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들은 사상적인 면에서는, 당시 唐의 지식인들이 그러했듯 儒佛道를 섭렵하는 普遍性을 띠기도 하였다. 첫째, 유교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학문을 배워 儒家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035)
** 한국사학연구소 소장.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점, 둘째 도교 경전에 있어서 『老子道德經』을 수용하여 애독하면서 중시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서로 個別性을 띠었다. 특히 도교사상에서 두 사람은 『莊子』를 애독하면서도 김인문은 그 「天下」편을, 김지성은 그 「逍遙遊」편을 중시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김인문과 김지성이 지닌 이러한 도교사상의 특징은 그 자신의 사회적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가늠된다. 김인문은 唐 皇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식인들과의 교유하던 신라의 왕족으로서 적어도 중국의 사상 맥락을 제대로 알고자 했기에 그런 내용이 담긴 『장자』의 「천하」편을 중시하였던 것이라 이해된다. 반면에 김지성은 현실 정치 속에서 "지략도 없이 세상을 바로잡으려다 겨우 刑과 法에 걸리는 것을 면한" 체험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6두품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을 역임하고 퇴임하기에 이르게 되자, '悠悠自適'의 이상을 추구하는 『장자』의 「소요유」편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신라, 김지성, 六頭品, 김인문, 眞骨, 唐, 도교사상, 『노자』, 『장자』.

1. 緖言

新羅人 金志誠(652, 眞德女王 6년 – 720, 聖德王 19년)이 수용했던 道教思想의 진면모와 그 특징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당 어느 무엇보다도 그의 사상을 드러내 주는 기록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가 지닌 그러한 道教思想의 진면모와 그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一環으로 그 형성의 시대적 배경은 물론이고 그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가늠하기 위하여서라도, 그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그의 생애에 대한 관련 기록들을 면밀하게 살펴 그 실제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金志誠은 그의 생애에 관한 金石文 자료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의 기록을 통틀어 가장 특기할 사실은, 그가 新羅에서 聖德王 17년(718) 어간에 執事侍郎을 지내기 이전에 聖德王 4년(705) 入唐한 이후[1]

1) 金志誠의 入唐 및 그곳에서의 唐 官職 歷任 사실과 관련해서는 權悳永, 「遣唐使의 구성과 운영」,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硏究』, 一潮閣, 1997; 구문회, 「감산사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 조상기를 통해 본 7-8세기 신라 귀족의 삶—金志誠의 일생과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생활문물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5-26면 참조.

그곳에서 唐의 職銜을 띠고 활약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金志誠의 經歷 내용을 구체적으로 生歿 및 歷任 職銜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1]이다.

[表 1] 金志誠의 生歿 및 歷任 職銜 分析表

時期			金志誠
新羅	唐	西紀	
眞德女王 6년	高宗 永徽 3년	652년	生
聖德王 4년	武周則天皇帝 神龍 元年	705년	尙舍奉御
聖德王 17년	玄宗 開元 6년	718년	執事侍郎 致仕
聖德王 19年	玄宗 開元 8년	720년	歿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 중 그의 최초 官歷으로 記載된 '鳳闕'의 '尙舍奉御' 職이 新羅의 그것[2]이 아니라 훗날 '鷄林' 즉 新羅의 '執事侍郎職'과는 대비되는 唐의 그것이라는 점[3]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본론에서 詳述하는 바와 같이 그는 遣唐使로서 入唐한 후 '鳳闕'에서 '尙舍奉御'職을 역임한 게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 믿어진다. 따라서 그는 同時代 唐 政局의 推移 속에서 전개되던 道教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에 나타난 金志誠의 道教思想 수용 양상과 그 성격을 심층 분석하겠다. 그리고 金志誠『老子道德經』 및『莊子』 受容의 思想史的 性格을 규명하고, 그런 후에 金志誠 道教思想의 특징과 그 思想史的 意味를 金仁問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겠다.

2) 文明大, 「新羅 法相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一甘山寺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중심으로 一」 上,『歷史學報』 62, 역사학회, 1974, 88, 93면; 李基東, 「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震檀學報』 50, 진단학회, 1980, 37-54면;『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40면; 김영미, 「聖德王代 專制王權에 대한 一考察一甘山寺 彌勒像·阿彌陀像銘文과 관련하여一」,『梨大史苑』 22·23, 이화여대 사학회, 1988, 387-388면.

3) 權悳永, 앞의 책, 138-139면; 구문회, 앞의 글, 16면.

2.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에 나타난 金志誠의 經歷 檢討

金志誠은 逝去하기 1년 전인 己未年(719) 2월 15일에 慶州에 甘山寺를 건립하고 石造阿彌陀像·石造彌勒像 각1軀를 조성하여, 이러한 寺刹의 건립과 佛像의 조성에 관한 문장을 당시 國王이었던 聖德王의 敎를 받아 薛聰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각각의 佛像에 銘文으로 새겼다. 이를 오늘날 각각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라 지칭하는데[4], 여기에는 金志誠의 政治經歷뿐만 아니라 그의 思想 軌跡 가운데 특히 道敎思想의 眞面目까지 드러내는 대목들도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의당 이들 造像記의 세부적인 서술 내용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金志誠 자신의 官職 經歷을 규명하고자 한다.

1)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에 나타난 金志誠의 經歷 檢討

金志誠의 관직 경력과 관련해서나, 金志誠의 道敎思想 수용 양상과 그 성격 규명과 관련해서나,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 두 造像記의 내용을 한 글자씩 대조하여 비교해볼 때, 앞엣것이 뒤엣것보다 상세하면서도 뒤엣것이 앞엣것을 일부 보완하기도 하므로 앞엣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내용을 먼저 검토하겠다.[5] 앞엣것의 원문을 국역하여 그 가운데 金志誠의 관직 경력과 직결된 부분만 밑줄을 그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 國譯 全文 중 金志誠 經歷 關聯 部分

重阿飡 金志全은 신령스러운 산천의 기운으로 태어났으며 星辰이 내린 덕을 받아 性[品]은 구름과 노을에 맞고 [性]情은 산수와 벗하였다. ㉠현명한 資質을 갖추어

4) 金南允, 「甘山寺 彌勒·阿彌陀佛 造像記」,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신라2·발해편),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 이 두 造像記 중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는 「甘山寺 阿彌陀如來造像記」로 불리기도 하며, 『三國遺事』 卷3 「塔像」 4 南月山 條에도 그것의 略抄된 내용이 전하고 있어 비교 검토된 바가 있다. 金煐泰, 『三國新羅時代佛敎金石文考證』, 民族社, 1992, 68-73면 참조.

5) 建立 時期도 「阿彌陀佛造像記」는 聖德王 19년(720), 「彌勒菩薩造像記」는 聖德王 18년(719)이어서, 「阿彌陀佛造像記」가 1년 늦을 뿐만 아니라 聖德王 19년(720)에 사망한 기록이 붙여져 있는 등 「彌勒菩薩造像記」의 기록보다 상세하므로 편의상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王]命을 이어받았고 智略을 품어서 時政을 보좌하였으며, ㉡鳳闕[天子의 大闕]에 나아가 경륜을 쌓아 곧 尙舍奉御에 제수되어 어명을 받들었고, ㉢鷄林에 물러와 印綬를 늘어뜨리며 執事侍郎을 역임하였다. ㉣나이 67세에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세간을 피해 한적한 곳에 거처하니 四皓의 고상함과 같았고, 영화를 버리고 성품을 기르니 兩疏가 물러날 때를 안 것과 같았다. 無著의 眞宗을 우러러 사모하여 때때로 『瑜伽論』을 읽고 겸하여 莊子[莊周]의 그윽한 도를 사랑하여 날마다 「逍遙篇」을 열람하였다. 자애로운 부모 은덕에 보답하는 것은 十號의 힘만한 것이 없고, 성스러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함은 三寶의 인연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여겼다.6)

이 「阿彌陀佛造像記」 중 金志誠의 관직 경력과 관련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실들을 기재한 것으로 읽힌다. 즉 "나이 67세에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기(㉣)"까지 "현명한 資質을 갖추어 [王]命을 이어받았고 智略을 품어서 時政을 보좌하던(㉠)" 初級 관리 시절을 시작해서, 중간에 天子의 大闕을 지칭하는 "鳳闕에 나아가 경륜을 쌓아 곧 尙舍奉御에 제수되어 어명을 받들었던(㉡)" 중간의 入唐 후 唐에서 尙舍奉御를 제수받고 奉職하던 시절을 거쳐, 다시 新羅로 돌아와 "鷄林에 물러와 印綬를 늘어뜨리며 執事侍郎을 역임했던(㉢)"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나열한 것이라 하겠다.7)

여기에서 우선 이러한 기록 가운데 "鳳闕에 나아가 경륜을 쌓아 곧 尙舍奉御에 제수되어 어명을 받들었던(㉡)"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물론 이 대목 가운데 '鳳闕'은 '天子의 大闕8)'이어서 앞서 이미 언급한

6) 원문은 "有重阿飡金志全, 誕靈河岳, 降德星辰, 性叶雲霞, 情友山水. ㉠蘊賢材而命代, 懷智略以佐時. ㉡朝鳳闕而銜綸則授尙舍奉御, ㉢遂雞林而曳綬則任執事侍郎. ㉣年六十七懸車致仕, 避世閑居, 侔四皓之高尙, 辭榮養性, 同兩疎之見機, 仰慕無著眞宗, 時時讀瑜伽之論, 兼愛莊周玄道, 日日覽逍遙之篇. 以爲報德慈親莫如十號之力, 酬恩聖主無過三寶之因." 이상의 원문 및 국역은 金南允, 「甘山寺 彌勒・阿彌陀佛 造像記」, 앞의 책, 293-302면 참조.

7) 「阿彌陀佛造像記」의 '聰撰奉教' 구절의 '聰'은 薛聰으로, 곧 薛聰이 이 「阿彌陀佛造像記」를 國王의 명령을 받아서 撰述한 사실이 이로써 입증된다. 薛聰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金志誠의 생애에 대해 이른바 '論斷'을 배제하고 시대순으로 있었던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그가 소위 '述而不作'의 春秋筆法에 立脚한 敍述을 指向하였음을 입증해주는 바라고 여겨진다. 소위 '述而不作'의 春秋筆法에 관해서는 朱熹, 『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93면. 顧炎武, 「史記于序事中寓論斷」, 『日知錄』; [淸] 顧炎武 撰, [淸]黃汝成 集釋, 『日知錄集釋』, 北京: 岳麓書社, 1994, 891-892면; 『日知錄集釋』 下, 北京: 中華書局, 2020, 1279면. 그리고 李洲良, 「春秋筆法與史遷筆法」, 『春秋筆法論』,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12, 124-137면; 潘銘基, 〈春秋筆法與史學傳統〉, 「≪漢書≫的春秋筆法」, 『≪漢書≫及其春秋筆法』, 北京: 中華書局, 2019, 274-275면 참조.

바대로 新羅 國王의 宮闕이 아니라 唐 皇帝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따라서 거기에서 除授받은 김지성의 職銜인 '尙舍奉御' 역시 唐의 것이지 新羅의 것이 아님이 옳다.

아울러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金志誠이 이렇듯이 入唐하여 尙舍奉御를 제수받은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冊府元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요긴하다.

> 神龍3년 3월 新羅王이 金志誠을 使臣으로 派遣하여 來朝하였다.[9]

이로써 金志誠이 神龍 3년(707) 곧 聖德王 6년 3월에 唐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러면 金志誠이 하필이면 이 시기에 唐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어간의 唐의 政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이 우선일 것이다.

705년 정월 1일에 武周則天皇帝는 神龍으로 改號한 후, 24일에는 그녀의 親子인 李顯 곧 당시 皇太子이자 이미 嗣聖 元年에 高宗의 뒤를 이어 皇位에 일시 登極하였던 적이 있었던 中宗에게 傳位를 하였으며, 2월 4일에는 國號가 '大周'에서 '大唐'으로 회복되었다.[10] 그런 뒤 그녀가 11월 26일에 사망함으로써, 모든 권한이 中宗에게 넘겨지는 듯하였지만, 기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則天武后가 高宗의 시대에 그래왔듯이 中宗의 皇后 韋氏가 中宗의 정치에 관여하더니, 급기야 그녀 자신의 딸 安樂公主와 공모하여 中宗을 景龍 4년(710) 6월에 毒殺하고 말았다.[11]

---

8) 『漢韓大字典』, 民衆書館, 초판, 1966, 1403면; 民衆書林, 全面改正 增補版, 2001, 2340면.

9)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15 朝貢 3 "神龍元年三月, 新羅王金志誠遣使來朝." 이 기록에 대해서 末松保和, 「甘山寺彌勒尊像及び阿彌陀佛の火光後記」, 『朝鮮』 211, 朝鮮總督府, 1932; 『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954, 459면; 『新羅の政治と社會』 下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4, 東京: 吉川弘文館, 1995, 126면에서 처음으로 "新羅王遣金志誠來朝"의 誤記일 것으로 추정하였고, 구문회, 앞의 글, 16면에서는 이를 취한 바가 있다.

10) 呂思勉, 「中宗復位」, 『隋唐五代史』 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重印, 2017, 138-142면; 外山軍治, 〈則天皇帝の最後〉, 「女帝出現」, 『則天武后: 女性と權力』, 東京: 中公新書, 1966, 171-173면; 박정임 옮김, 〈측천황제의 최후〉, 「측천무후의 여파」, 『측천무후』, 페이퍼로드, 2006, 222-224면; 雷家驥, 「神龍政變與大周覆亡」, 『武則天傳』, 北京: 人民出版社, 2008, 577-589면; 王洪軍, 「千古一女皇」, 『武則天評傳』,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10, 344-347면.

11) 呂思勉, 앞의 책, 142-148면; 外山軍治, 앞의 책, 174-176면; 박정임 옮김, 앞의 책, 227-229면;

그러니까 金志誠이 入唐한 神龍 3년(707)은 中宗이 再卽位한 지 3년째 되는 해였고, 그의 韋皇后가 정치에 한껏 관여하던 시기였다. 앞서서 則天武后가 圜丘祭天을 성대히 거행하며 百官에게 官爵을 임의대로 높여 주면서 所謂 '稱帝奠定'을 일삼던 先例를 模倣하여, 韋皇后가 圜丘祭天의 亞獻은 물론 終獻도 독차지하면서 세력 확장에 혈안이었다.[12]

唐 皇室의 권력 구도가 이렇게 전개되자, 新羅에서는 이에 唐 皇室의 실권을 쥔 韋皇后의 존재를 실감하면서 自國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韋皇后의 관심을 끌기 위해 金志誠을 선발하여 使節로 파견하게 되었던 듯하다. 반면에 唐 皇室 특히 韋皇后로서는 藩國인 新羅가 使節을 파견하여 자신에게 예우를 갖추겠다는 데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배경에서 入唐한 金志誠이 除授받은 尙舍奉御의 職任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은, 이참에 잘 밝혀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이다. 이를 제대로 살피는 데에는 『新唐書』·『唐會要』의 아래 기록들에 대한 분석이 매우 적절할 것이다.

(1) 尙舍局奉御二人 直長六人 掌殿庭祭祀張設·湯沐·燈燭·汎掃. 行幸 則設三部帳幕 有古帳·大帳·次帳·小次帳·小帳凡五等 各三部; 其外 則蔽以排城. 大朝會 設黼扆 施躡席 薰鑪. 朔望 設幄而已. (『新唐書』 卷47 百官志 1 殿中省 條)
(2) 尙舍奉御鋪御座(『唐會要』 卷8 「郊議」 〈封祀之儀〉 陳設 條)
(3) 前祀七日 皇帝散齋四日於別殿 致齋三日 其二日於太極殿 一日於行宮 前致齋一日 尙舍奉御設御幄於太極殿西序及室內 俱北向(同書 卷9 「雜郊議」下 〈齋戒〉의 첫 대목)

『新唐書』의 기록인 (1)에는 尙舍奉御가 2인으로 그 구체적인 職任이 殿庭祭祀의 張設·湯沐·燈燭·汎掃 뿐만이 아니라 行幸 및 大朝會 때의 帳幕 설치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매우 유익하다. 이와 함께 『唐會要』의 기록인 (2)·(3)에는 그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皇宮의 別殿이나 太極殿 등에서 皇帝가 散齋나 致齋를 거행할

氣賀澤保規, 「武后殘影」, 『則天武后』, 東京: 講談社, 2016, 318-324면.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Melbourn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55; Vancouver: Centre Univ. of British Columbia, 1968. X. L. Woo, *Empress Wu the Great*, New York: Algora Pub., 2008 참조.

12) 王效鋒, 〈祭壇風雲—唐中宗與圜丘祭天〉, 「唐代前期皇帝與圜丘祭天」, 『唐代皇帝祭天故事』, 西安: 西安出版社, 2018, 120-122면.

때[13] 皇帝의 御座 및 御幄 설치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러한 『新唐書』 및 『唐會要』 기록으로 살필 때, 尙舍奉御는 皇室에서 거행되는 다양하고 빈번히 거행되는 殿庭祭祀는 물론이고 圜丘祭天 등에서도 皇帝의 御座 및 御幄 설치 등을 담당하는 게 職任이었던 게 분명하다. 그리고 金志誠이 그러한 尙舍奉御職을 수행함으로써 唐 皇室의 國家祭祀가 어떻게 준비되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추게 됨으로써 훗날 新羅로 歸還하여 國政을 보필할 때 唐 皇室의 이와 같은 실제의 면모를 勘案해서 實行에 옮길 수 있게 됨으로써 執事侍郎의 직위에까지 승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법하다.

2) 「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에 나타난 金志誠의 經歷 檢討

한편 그렇지만 「阿彌陀佛造像記」의 이러한 기록 자체가 金志誠의 官歷 전부를 온전히 그대로 기재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일부는 누락이 되었던 것이 입증되는데, 앞에서 살핀 「阿彌陀佛造像記」의 ㉠㉡㉢ 대목과 아래의 「彌勒菩薩造像記」의 金志誠 經歷 關聯 部分을 비교해보면, 서로 차이가 나는 대목이 찾아지기 때문이다.

(Ⅱ)「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 國譯 全文 중 金志誠 經歷 關聯 部分

[佛]弟子 [金]志誠은 태평성대에 태어나 ⓐ영화로운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지략도 없어 세상을 바로잡으려다 겨우 刑과 法에 걸리는 것을 면하였다. 性[品]은 산수를 좋아하여 莊子・老子의 逍遙(悠悠自適)을 사모하였고, 뜻은 眞宗(불교)을 중히 여겨 無著의 그윽하고 고요함을 희구하였다. ⓒ나이 67세에 조정에서 임금이 맡긴 일을 사퇴하고 드디어 한적한 전원으로 돌아가 五千言의 『道德[經]』을 읽으며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현묘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으며 17地의 [瑜伽]法門을 깊이 연구하여 色・空이 무너지고 모두 멸함을 알았다. ⓓ다시 草廬에 王命을 내리니 都城 가까이에서의 바쁜 직무를 맡았다. 비록 관직에 있어 세속에 물들었지만 世間 밖에 둔 마음을 버리지 못해 [金]志誠의 재산을 다 바쳐 甘山의 伽藍을 세웠다.[14]

---

13) 이와 같은 唐 皇帝 親祭의 역사적 추이와 그 특징에 관해서는 金子修一, 「唐代皇帝祭祀の特質」, 『古代中國と皇帝祭祀』, 東京: 汲古書院, 2001; 肖聖中・吳思思 (外) 譯, 「唐代皇帝祭祀的特質」, 『古代中國與皇帝祭祀』, 上海: 複旦大學出版社, 2017을 참조하라.

이 「彌勒菩薩造像記」의 金志誠 經歷 記載에서 "ⓐ영화로운 관직을 역임하였다."라고 함은, 앞서 살핀 「阿彌陀佛造像記」의 ㉠㉡㉢ 대목의 구체적인 사실들 즉 "현명한 資質을 갖추어 [王]命을 이어받았고 智略을 품어서 時政을 보좌했고(㉠)" "鳳闕에 나아가 경륜을 쌓아 곧 尙舍奉御에 제수되어 어명을 받들었던(㉡)" 그리고 "鷄林에 물러와 印綬를 늘어뜨리며 執事侍郎을 역임했던(㉢)" 사실들을 통틀어 지칭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彌勒菩薩造像記」의 "ⓒ나이 67세에 조정에서 임금이 맡긴 일을 사퇴하고 드디어 한적한 전원으로 돌아갔다."라고 한 사실 역시 「阿彌陀佛造像記」의 "㉣나이 67세에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세간을 피해 한적한 곳에 거처하니"와 거의 똑같다.

그러나 이 「彌勒菩薩造像記」의 기록 가운데 "ⓑ지략도 없어 세상을 바로잡으려다 겨우 刑과 法에 걸리는 것을 면하였다."라고 한 바와 또한 "ⓓ다시 草廬에 王命을 내리니 都城 가까이에서 바쁜 직무를 맡았다."라고 한 바는, 「阿彌陀佛造像記」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사실의 記載 내용이다. 말하자면 「彌勒菩薩造像記」의 金志誠 經歷 記載에는 「阿彌陀佛造像記」의 그것과는 다른 면모가 담겨 있어서, 뭔가 복잡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金志誠 자신의 신변에도 그 여파가 미쳤던 사실이 추가로 서술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15]

지금까지 「阿彌陀佛造像記」·「彌勒菩薩造像記」 두 造像記의 原文을 對照하고 比較해서 檢討한 金志誠의 經歷에 관한 내용을 잘 견줄 수 있게끔 圖表로 작성

---

14) 원문은 "弟子志誠, 生於聖世, ⓐ歷任榮班. ⓑ無智略以匡時, 僅免罹於刑憲. 性諧山水. 慕莊老之逍遙. 志重眞宗, 希無著之玄寂. ⓒ年六十有七, 致王事於淸朝, 遂歸田於閒野, 披閱五千言之道德, 弃名位而入玄. 窮研十七地之法門, 壞色空而俱滅. ⓓ尋復降旌命於草廬, 典邇都之劇務, 雖在官而染俗, 塵外之心無捨, 罄志誠之資業, 建甘山之伽藍." 이상의 원문 및 국역은 金南允, 「甘山寺 彌勒·阿彌陀佛 造像記」, 앞의 책, 293-302면 참조.

15) 이렇듯이 「阿彌陀佛造像記」에는 없지만 「彌勒菩薩造像記」에만 '겨우 刑과 法에 걸리는 것을 면하였다(ⓑ).'라든가, '다시 (…) 바쁜 직무를 맡았다(ⓓ).'라든가 하는 金志誠 일신의 安危 및 榮轉에 관한 기록이 서술된 것 자체는 곧 그가 지녔던 佛教의 彌勒信仰과 결부되는 사항이며, 그것도 특히 彌勒下生信仰의 단면을 드러내 주는 대목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金志誠이 이렇게 彌勒下生信仰에 입각한 佛教思想을 지니게 된 데에는, 唐에서 그 무렵 『大雲經』 注疏의 대대적인 전국적 반포를 통해 武則天을 彌勒의 下生이자 閻浮提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미화하여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武周革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실이 배경의 일단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 武則天의 『大雲經』 注疏 대대적인 전국적 반포 및 그녀의 彌勒下生信仰과 관련해서는 윤미영, 「중국 여황제 武則天의 정권창립과 불교—『大雲經疏』를 중심으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1(2), 2015, 229면 참조.

하여 보았다. 다음의 [表 2]가 그것이다.

[表 2]「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의 金志誠 經歷 關聯 原文 對照比較表

順番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		「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
1	蘊賢材而命代 懷智略以佐時 (㉠)	新羅	歷任榮班 (ⓐ)
2	朝鳳闕而銜綸則授尙舍奉御 (㉡)	唐	
3	逡雞林而曳綬則任執事侍郎 (㉢)	新羅	
4			無智略以匡時 僅免罹於刑憲 (ⓑ)
5	年六十七懸車致仕 (ⓔ)		年六十有七 致王事於淸朝 遂歸田於閒野 (ⓒ)
6			尋復降旌命於草廬 典邇都之劇務 (ⓓ)

이 [表 2]를 토대로 살피면,「彌勒菩薩造像記」에서만 "ⓑ지략도 없어 세상을 바로잡으려다 겨우 刑과 法에 걸리는 것을 면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가 執事侍郎職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했던 상황인 듯하다. 그래서 결국 그는「阿彌陀佛造像記」의 "ⓔ나이 67세에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세간을 피해 한적한 곳에 거처하였다."라고 했음과「彌勒菩薩造像記」의 "ⓒ나이 67세에 조정에서 임금이 맡긴 일을 사퇴하고 드디어 한적한 전원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음과 같이 일단 隱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그랬다가 그는 이후 머지않아 재차 要職으로 등용된 것으로 가늠되는데,「彌勒菩薩造像記」에서만 보이는 바대로 "ⓓ다시 草廬에 王命을 내리니 都城 가까이에서의 바쁜 직무를 맡았다."라고 했음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이해된다. 이 기록에서 그가 맡았다고 하는 '都城 가까이에서의 바쁜 직무'라고 함에서 王命을 받아 이뤄진 要職으로의 再登用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가늠된다.

하지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알 길이 전혀 없으나, 다만 이런 과정에서 6頭品인 그의 官等이 王命에 따라 上限인 阿飡을 상회하여 重阿飡으로 特進된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시점은「阿彌陀佛造像記」·「彌勒菩薩造像記」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가늠할 때, 戊午年(聖德王 17년, 718) 그의 나이 67세로 執事侍郎에서 물러난 이후로부터 그가 他界하는 庚申年(聖德王 19년, 720)까지 2년 사이의 일이었다고 특정할 수 있겠다.

3. 「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에 나타난 金志誠의 道敎思想 受容 樣相

金志誠이 道敎思想을 受容한 樣相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가 건립한 「彌勒菩薩造像記」와 「阿彌陀佛造像記」에 나타난 내용을 면밀하게 천착하여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彌勒菩薩造像記」·「阿彌陀佛造像記」의 全文 중 그의 宗敎思想과 관련된 부분을 國譯하여 原文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이다.

(Ⅲ)「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 國譯 全文 중 金志誠 宗敎思想 關聯 部分

重阿飡 金志全은 신령스러운 산천의 기운으로 태어났으며 星辰이 내린 덕을 받아 ㉮性[品]은 구름과 노을에 맞고 [性]情은 산수와 벗하였다. 현명한 資質을 갖추어 [王]命을 이어받았고 智略을 품어서 時政을 보좌하였으며, 鳳闕[天子의 大闕]에 나아가 경륜을 쌓아 곧 尙舍奉御에 제수되어 어명을 받들었고, 鷄林에 물러와 印綬를 늘어뜨리며 執事侍郎을 역임하였다.

나이 67세에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세간을 피해 한적한 곳에 거처하니 四皓의 고상함과 같았고, ㉰영화를 버리고 성품을 기르니 兩疏가 물러날 때를 안 것과 같았다. 無著의 眞宗을 우러러 사모하여 때때로 『瑜伽論』을 읽고 ㉱겸하여 莊子[莊周]의 그윽한 도를 사랑하여 날마다 「逍遙篇」을 열람하였다. ※①자애로운 부모 은덕에 보답하는 것은 十號의 힘만한 게 없고, 성스러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함은 三寶의 인연을 능가하는 게 없다고 여겼다.[16]

(Ⅳ)「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 國譯 全文 중 金志誠 宗敎思想 關聯 部分

[佛]弟子 [金]志誠은 태평성대에 태어나 영화로운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지략도 없어 세상을 바로잡으려다 겨우 刑과 法에 걸리는 것을 면하였다. Ⓐ성품은 산수를 좋아하여 Ⓑ莊子·老子의 逍遙[悠悠自適]을 사모하였고, 뜻은 眞宗(불교)을 중히 여겨 無著의 그윽하고 고요함을 희구하였다. 나이 67세에 조정에서 임금이 맡긴 일을 사퇴하고 Ⓒ드디어 한적한 전원으로 돌아가 Ⓓ五千言의 『道德[經]』을 읽으며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현묘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으며 17地의 [瑜伽]

16) 원문은 "有重阿飡金志全, 誕靈河岳, 降德星辰, ㉮性叶雲霞, 情友山水. 蘊賢材而命代, 懷智略以佐時, 朝鳳闕而銜綸則授尙舍奉御, 逶雞林而曳綬則任執事侍郎. 年六十七懸車致仕, ㉯避世閑居, 侔四皓之高尙, 辭榮養性同兩疎之見機. 仰慕無著眞宗, 時時讀瑜伽之論, ㉰兼愛莊周玄道, 日日覽逍遙之篇. 以爲報德慈親莫如十號之力, 酬恩聖主無過三寶之因." 이상의 원문 및 국역은 金南允, 「甘山寺 彌勒·阿彌陀佛 造像記」, 앞의 책, 293-302면 참조.

法門을 깊이 연구하여 色·空이 무너지고 모두 멸함을 알았다. 다시 草廬에 王命을 내리니 都城 가까이에서 바쁜 직무를 맡았다. ※②비록 관직에 있어 세속에 물들었으나 世間 밖에 둔 마음을 버리지 못해 [金]志誠의 재산을 다 바쳐 甘山의 伽藍을 세웠다.[17]

이러한 「阿彌陀佛造像記」·「彌勒菩薩造像記」에 나타난 김지성의 道教思想의 구체적인 면모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 내용만을 따로 추출하여 대조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두 「造像記」의 서술 내용 중에는 同一한 면모에 대한 기록이면서도 그 서술 순서가 뒤바뀌어 登載된 경우도 찾아질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는 경우도 찾아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阿彌陀佛造像記」·「彌勒菩薩造像記」에 보이는 金志誠의 道教思想에 關聯한 原文만을 對照하여 比較한 圖表를 작성하게 되었다. 아래의 [表 3]이 그것이다.

[表 3]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의 金志誠 道教思想 關聯 原文 對照比較表

順番	「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	「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	備考	
			內容/構成	類型
1	性叶雲霞 情友山水(㉮)	性諧山水(Ⓐ)	類似/類似	第1類型
2	避世閑居 侔四皓之高尙(㉰)	遂歸田於閒野(Ⓒ)	類似/相異	第3類型
3	辭榮養性 同兩疎之見機(㉱)	弃名位而入玄(Ⓔ)		
4	兼愛莊周玄道 日日覽逍遙之篇(㉲)	慕莊老之逍遙(Ⓑ)	類似/差異	第2類型
5	×	披閱五千言之道德(Ⓓ)	相異/相異	第4類型

이 〈表 3〉를 토대로 세밀하게 분석하니, 「阿彌陀佛造像記」·「彌勒菩薩造像記」에 보이는 金志誠의 道教思想에 關聯한 原文 자체가 서술 내용으로 보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金志誠의 道教思想 關聯 原文이 4種의 類型으로 나뉜다고 보인다.

제1유형은 그 서술 내용이 類似하면서도 문장 구성도 유사한 경우이다. 「阿彌陀佛

17) 원문은 "弟子志誠, 生於聖世, 歷任榮班. 無智略以匡時, 僅免罹於刑憲. Ⓐ性諧山水, Ⓑ慕莊老之逍遙, 志重眞宗, 希無著之玄寂. 年六十有七, 致王事於淸朝. 遂歸田於閒野, Ⓒ披閱五千言之道德, 弃名位而入玄. 窮研十七地之法門, 壞色空而俱滅. 尋復降旌命於草廬, 典邇都之劇務. 雖在官而染俗, 塵外之心無捨, 罄志誠之資業, 建甘山之伽藍." 이상의 원문 및 국역은 金南允, 「甘山寺 彌勒·阿彌陀佛 造像記」, 같은 책, 293-302면 참조.

造像記」의 "性叶雲霞 情友山水(㉮)"와 「彌勒菩薩造像記」 "性諧山水(Ⓐ)"이 그렇다고 판단된다. 이는 얼핏 보아도 그러함을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유형은 그 서술 내용이 類似한 듯하나 세부적인 문장 구성을 따져 보면 差異가 나는 경우이다. 「阿彌陀佛造像記」의 "兼愛莊周玄道 日日覽逍遙之篇(㉯)"에서는 '莊周' 곧 莊子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과는 달리, 「彌勒菩薩造像記」 "慕莊老之逍遙(Ⓑ)"에서는 '莊老' 즉 莊子와 老子를 合稱한 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彌勒菩薩造像記」에서 "慕莊老之逍遙(Ⓑ)"라고 한 것은, 아마도 『莊子』 「逍遙遊」篇에서 주로 '逍遙' 즉 '悠悠自適/悠悠自適'[18]을 일관되게 指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老子道德經』에서도 역시 그러하였음을 認識한 바탕에 입각한 것인 듯하다.

제3유형은 그 서술이 지향하는 근본 내용은 類似하나 그 구체적인 서술 문장의 구성 자체가 相異한 경우이다. 「阿彌陀佛造像記」의 "避世閑居 侔四皓之高尙(㉰)"과 「彌勒菩薩造像記」의 "遂歸田於閒野(Ⓒ)", 「阿彌陀佛造像記」의 "辭榮養性 同兩疎之見機(㉱)"와 「彌勒菩薩造像記」의 "弃名位而入玄(Ⓔ)" 등이 그렇다고 분석된다. 먼저 「阿彌陀佛造像記」의 "避世閑居(㉰)" 대목과 「彌勒菩薩造像記」의 "遂歸田於閒野(Ⓒ) 대목이 서술 내용이 매우 類似함이 확연하지만, 「阿彌陀佛造像記」에는 "侔四皓之高尙(㉰)"이 추가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四皓'가 바로 中國 漢 나라 때 商山에 隱居하던 東園公・綺里季・夏黃公・甪利先生 등을 지칭하며, 이들 모두가 수염과 눈썹이 모두 희다고 해서 '四皓'로 불리는 사실을 摘示한 것으로, 그래서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隱遁의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였음이 살펴져야 한다. 그리고 「阿彌陀佛造像記」의 "辭榮養性 同兩疎之見機(㉱)"와 「彌勒菩薩造像記」의 "弃名位而入玄(Ⓔ)" 역시 「阿彌陀佛造像記」의 "辭榮養性(㉱)" 대목이 「彌勒菩薩造像記」의 "弃名位而入玄(Ⓔ)" 대목과 그 내용에 있어서 類似을 띠고 있음이 감지되지만, 「阿彌陀佛造像記」의 "同兩疎之見機(㉱)" 대목에서 '兩疏'는 그 "弃名位而入玄(Ⓔ)" 즉 隱居의 대명사로

18) 이러한 해석은 李元燮 解說・譯, 『莊子・老子』 世界文學全集 11, 大洋書籍, 1971. 153면의 해설 "소요유란 悠然自適의 뜻이다." 및 金達鎭 譯, 『(禪詩와 함께 엮은) 莊子』, 고려원, 1987; 『장자』 金達鎭 全集 4, 문학동네, 1999, 12면의 풀이 "『장자』 33편 가운데 첫편인 이 「소요유」는 장자 사상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 소요란 마음이 가는 대로 유유히 생활하는 모양이며, 따라서 소요유란 마음을 그러한 유유자적의 경지에 노닐게 하는 것" 참조.

손꼽히는 인물인 漢 나라의 疏受・疏廣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金志誠이 이같이 漢 나라 때의 '四皓' 東園公・綺里季・夏黃公・甪利先生 및 '兩疏' 疏受・疏廣을 본받는 隱遁을 지향했다는 점은 그가 지녔던 道教思想의 眞面貌 중 一端을 드러내는 매우 主要한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4유형으로는 相異하게 「阿彌陀佛造像記」에는 전혀 그런 바가 없고 「彌勒菩薩造像記」에만 등재된 "披閱五千言之道德(Ⓓ)" 대목을 꼽아 마땅하다. 이는 이미 앞서 제2유형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듯이 「彌勒菩薩造像記」의 "慕莊老之逍遙(Ⓑ)" 대목에서 '莊老'를 合稱함으로써 『老子道德經』을 이미 거론하였으나, 金志誠의 道教思想 受容에 있어서 그 比重이 『莊子』보다 더 多大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굳이 '五千言之道德'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이렇게 서술한 것 자체가 金志誠의 道教思想 受容과 직결되는 또 다른 하나의 眞面貌를 기록하려는 意圖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가늠된다.

「彌勒菩薩造像記」에만 등재된 이 문장 "披閱五千言之道德(Ⓓ)"에서 金志誠이 閱覽했다고 하는 '五千言之道德'이라고 함은, 후세에 전해지는 여러 형태의 『老子道德經』 중 5,000字로 구성—실제로는 4,999字라고 하는데—되어 있다고 해서 소위 '五千字本'이라 불리기도 하는 특수한 형식의 『道德經』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張魯의 손으로 이룬 『老子道德經』 刪定本이며, 五斗米道 信徒의 생활 규범으로 道誡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19] 이렇듯이 '五千言之道德' 곧 '五千字本' 『老子道德經』이 張魯의 刪定本으로 五斗米道 信徒의 생활 규범이었는데, 金志誠이 이를 閱覽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러한 경향의 道教思想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듯하다.[20]

---

19) 窪德忠, 西順藏 編, 『中國文化叢書 6 宗教』, 東京: 大修館書店, 1967; 조성을 옮김, 『중국종교사』, 한울, 1996, 46-48면; 牟鍾鑒, 『中國道教』,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96; 이봉호 옮김, 『중국도교사—신선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 예문서원, 2015, 32-33면.

20) 다만 新羅人의 五斗米道 신봉과 관련한 기록이 全無한 상태라 가늠하기 쉽지 않으나, 그대로 참고가 될 만한 측면은 다음과 같은 『三國遺事』 3 興法編 「寶藏奉老 普德移庵」 조에 담긴 高句麗의 경우에서 엿볼 수가 있다.

"고려본기에 이른다. 고구려 말기 무덕・정관 연간에 국인이 오두미교를 다투어 신봉하였다(高麗本記云 麗季武德貞觀間 國人爭奉五斗米教)"

한편으로 앞서 제시한 [表 3]을 토대로 그 서술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우선 「彌勒菩薩造像記」의 Ⓐ"성품은 산수를 좋아하여(性諧山水)" 대목이 Ⓑ"莊子・老子의 逍遙[悠悠自適]을 사모하였고" 대목으로 직결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阿彌陀佛造像記」의 ㉮"性[品]은 구름과 노을에 맞고 [性]情은 산수와 벗하였다(性叶雲霞 情友山水)" 대목도 내용상 그 뒤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서술된 ㉯"겸하여 莊子[莊周]의 그윽한 도를 사랑하여 날마다 「逍遙篇」을 열람하였다(兼愛莊周玄道 日日覽逍遙之篇)"는 대목과 연속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역시 그가 『莊子』의 初篇인 「逍遙遊」에 입각하여 道教思想을 습득하고 그에 걸맞게 생활하고 있었음을 가장 잘 입증해주는 바임이 분명하다.[21]

그러므로 金志誠이 道教思想을 受容한 樣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莊子』 「逍遙遊」篇의 내용을 주목하여 마땅하겠다. 이 「逍遙遊」篇 맨 처음의 대목에 북쪽 바다의 물고기 鯤과 그것이 변해서 天然의 큰 못인 남쪽 바다로 옮겨 간 새 鵬이 등장하는데, 그 鵬의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서술 속에 방금 앞서 본 바와 같은 「彌勒菩薩造像記」의 Ⓐ"성품은 산수를 좋아하였다."는 면모는 물론 「阿彌陀佛造像記」의 ㉮"性[品]은 구름과 노을에 맞고 [性]情은 산수와 벗하였다."는 면모의 근원이 되었다고 가늠된다.

이 기록에 보이는 中國의 年號 중 武德은 唐 高祖의 것으로 서기 618년부터 626년까지 사용되었으며, 貞觀은 唐 太宗의 것으로 서기 627년부터 649년까지 사용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618년은 신라로 견주면 眞平王 40년(高句麗 榮留王 1년)이고, 649년은 眞德女王 3년(寶藏王 8년)이다. 따라서 이 기록 자체를 그대로 좇으면, 고구려에서 五斗米教를 國人이 '다투어 신봉한(爭奉)' 것은 대체로 신라의 中古期 末葉, 고구려의 末期에 해당하는 것으로 셈이 된다. 아마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이 무렵부터 이미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훗날 '五千字本' 『老子道德經』 刪定本을 마련한 張魯의 祖父 張陵이 다섯 되의 쌀을 기꺼이 헌납하면 入教하여 符籍을 발급하고 疾病 治療 등을 받아 不老長生에 이를 수 있다고 함에 현혹되어 이를 믿었던 五斗米教 혹은 五斗米道가 유행하였을 법하며, 金志誠은 入唐 시절에 唐에서 이를 官職 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통해 현지에서 접한 이후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수용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게 아닐지 싶다.

21) 그러나 그가 이같이 道教思想을 습득하고 그에 걸맞는 생활을 일면 하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는 道教보다는 佛教에 더 깊이 심취하였던 게 사실이 아닌가 한다. 인용문 Ⅲ의 ※① 및 Ⅳ의 ※② 부분에서 그러한 면모가 여실히 입증되는 것으로 읽힌다. 즉 인용문 Ⅲ의 ※①에서 "자애로운 부모 은덕에 보답하는 것은 十號의 힘만한 게 없고, 성스러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함은 三寶의 인연을 능가하는 게 없다고 여겼다."라고 하였음과 Ⅳ의 ※②에서 "비록 관직에 있어 세속에 물들었으나 世間 밖에 둔 마음을 버리지 못해 [金]志誠의 재산을 다 바쳐 甘山의 伽藍을 세웠다."라고 한 게 모두 그가 지녔던 佛教 信仰의 眞面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莊子』 「逍遙遊」篇에는 이렇듯이 '아무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逍遙自在함'[22]이 담겨 있어 金志誠이 이에 흠뻑 魅了되었을 듯한데, 더욱이 末年에는 더욱 그 내용의 세세한 구절까지 샅샅이 그 의미를 되새김하며 자신의 生涯 전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逍遙遊」 중 여느 무엇보다도 莊子가 말한 다음 대목이 모든 것을 잊고 싶어 잠시 午睡에 들었다가도 떠올라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을 법하다.

> 그대는 홀로 살쾡이와 족제비를 보지 못했나요? 몸을 낮추고 엎디어 짐승을 겨누며 (ⅰ)동쪽으로 서쪽으로 날뛰어 (ⅱ)높고 낮음을 꺼리지 않다가 (ⅲ)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 것을.[23]

莊子는 이렇게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 것을(中於機辟 死於罔罟ⅲ)"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장 우려하였으며, 이것이 莊子의 避世 태도를 형성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24] 金志誠 자신도 同病相憐이었으리라 느껴진다.

그가 겪어야만 했던, 그래서 회상하기조차 두려운 상황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시한 [表 2] 金志誠 經歷 關聯 原文 對照比較表에서도 드러나는 바대로 「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에서만 보이는 기록 중에서 여실히 엿볼 수 있겠다. 바로 "영화로운 관직을 역임(歷任榮班ⓐ)"하다가 "지략도 없어 세상을 바로잡으려다 겨우 刑과 法에 걸리는 것을 면하였다(無智略以匡時 僅免罹於刑憲ⓑ)." 라고 한 대목이 그것을 입증해주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

그럴 때마다 金志誠은 그 자신이 莊子가 표현한 것과 같이 "(ⅰ)동쪽으로 서쪽으로 날뛰어 (ⅱ)높고 낮음을 꺼리지 않다가" 즉 동쪽의 新羅와 서쪽의 唐을 넘나들며 자신의 身分에 걸맞지 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기에

---

22) 金達鎭 譯, 앞의 책, 12면.

23) 「逍遙遊」篇 原文은 "子獨不見狸狌乎? 卑身而伏 以候敖者 東西跳梁 不避高下 中於機辟 死於罔罟." [晉] 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莊子注疏』, 北京: 中華書局, 2020, 21면; 陳鼓應 注釋, 『莊子今注今譯』 上, 北京: 中華書局, 2020, 35-37면 참조.

24) 陳鼓應, 「序」; 劉笑敢, 『莊子哲學及其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改題 「關於莊子研究的幾個觀點—序劉笑敢博士≪莊子哲學及其演變≫」, 『老莊新論』, 香港: 中華書局, 1991; 1995, 269면; 최진석 옮김, 「장자 연구 관점에 관하여—유소감 박사의 『장차 철학』에 부치는 글—」, 『노장신론』(2판), 소나무, 2013, 408면.

그 事案의 '높고 낮음을 꺼리지 않다가' 그 자신이 본의 아니게 겪어야만 했던 그 忍苦의 사건들이 느닷없이 走馬燈같이 눈 앞에 펼쳐지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毛骨이 송연해져서 머리를 강하게 흔들어 그 기억을 떨쳐내고자 했을 듯하다.

또한 『莊子』「齊物論」篇에서 楚나라 莊王 때의 南郭子綦와 그 弟子 顔成子游의 대화 중 南郭子綦가 지적한 말 역시 隱退 이후의 金志誠에게는 더욱 커다란 교훈이 되었을 법하다. 특히 아래의 대목이 그랬을 것이다.

> "평생을 고생만 하고도 성공을 보지 못한 채 시달리고 고달프게 쓰러져서 그 돌아갈 바를 알지 못하니 또한 불쌍하지 않은가!"25)

"겨우 刑과 法에 걸리는 것을 면함(僅免罹於刑憲ⓑ)"을 이미 겪은 바 있는 金志誠에게는 『莊子』「齊物論」篇의 바로 이 대목이 마치 莊子가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 직접 들려주는 위로로 느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헤아려진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든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다시 소생시켜주는 대목이라 느꼈을 것인데. 이러한 그의 의지 복구에 더욱 크게 힘이 되어준 대목은 다음과 같은 『莊子』「秋水」篇 및 「天下」篇에 등장하는 '曲士'·'一曲之士'와 관련한 언급이었던 듯하다.

> (ⅰ) "曲士에게 道에 관하여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教에 束縛되어서다."26)
> (ⅱ) "마치 百家의 여러 재주와 같은 것이라서 모두가 뛰어난 점이 있고 때에 따라 쓰이는 바가 있는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충분히 갖추고 빠짐없이 미치지 못하는 曲士의 하나일 뿐이다."27)

(ⅰ)의 「秋水」篇에서 擧論한 '曲士'가 束縛된 '教'는 단지 儒教에서 강조하는

---

25) 「齊物論」篇 原文은 "終身役役, 而不見其成功, 茶然疲役, 而不知其所歸, 可不哀邪!"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앞의 책, 31-32면; 陳鼓應 注釋, 『莊子今注今譯』 上, 北京: 中華書局, 2020, 53-57면 참조.
26) 「秋水」篇 原文은 "曲士不可以語於道者, 束於教也."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같은 책, 306면; 陳鼓應 注釋, 『莊子今注今譯』 中, 北京: 中華書局, 2020, 442-447면 참조.
27) 「天下」篇 原文은 "猶百家衆技也, 皆有所長, 時有所用. 雖然, 不該不徧, 一曲之士也." [晉]郭象 注, [唐] 成玄英 疏, 같은 책, 557면; 陳鼓應 注釋, 『莊子今注今譯』 下, 北京: 中華書局, 2020, 908-915면 참조.

禮敎 혹은 禮樂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金志誠의 입장에서는 당시 新羅 사회에서 중시되던, 사회 신분에 적합한 행동 양식의 준수 및 그것과 관련한 전통적인 교육 내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듯싶다.[28] 그리고 (ii)의 「天下」篇에서 云謂한 '一曲之士' 역시 諸子百家 못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뛰어난 점이 있고 때에 따라 쓰이는 바가 있어도"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충분히 갖추고 빠짐없이 미치지 못할" 뿐이었다. 이러한 『莊子』 「秋水」篇 및 「天下」篇에 등장하는 '曲士'·'一曲之士'에 관한 언급을 거듭 접하면서 金志誠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솟구치는 것을 堪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曲士'·'一曲之士'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을 듯하다.

그래서 金志誠은 『莊子』의 내용 가운데 이 대목의 '曲士'는 그 자신의 투영이라 여겼던 게 아닐까 싶다. 入唐하여 唐 皇室에서 관직을 지내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랄 수 있는 唐의 실상을 체험했지만 다만 新羅로 돌아와 6두품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金志誠 자신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고 있던 '曲士'로서 그러한 '敎'에 부합해야만 했던 각양각색의 '束縛'에서 벗어나고픈 욕구 그 자체를 사상적으로 한순간이라도 解渴해주는, 마치 지루한 가뭄 끝에 내리는 한 줄기 단비를 만난 것과도 같은 대목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래서 金志誠은 隱退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더욱더 道敎에도 깊숙이 매료되어 갔을 것이며, 점점 '無爲自然'에 심취하며 종국에는 隱遁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듯하다.[29]

4. 金志誠『老子道德經』및『莊子』受容의 思想史的 性格

末年의 隱退 이후 더욱 道敎에 매료되어 隱遁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金志誠은 『老子道德經』과 『莊子』의 한 字 하나의 句節을 샅샅이 涉獵하면서 머릿속에 담아 두어 언제나 腦裏를 맴돌았던 핵심 주제는 '無爲' 그 자체였을 것임이

28) 또한 거기에는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결코 여느 眞骨 못지않은 정도의 능력도 경력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六頭品이기에 승진에 제약을 받게 규정되어 있는 骨品制 등 新羅의 여러 제도를 지탱하는 理念 자체도 물론 포함되는 것으로도 여겨졌었을 법하다.

29) 이러한 金志誠의 隱遁 생활과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李基白, 「儒敎와 道敎」, 『歷史都市 慶州』, 悅話堂, 1984, 224-226면에서 상세하게 논하였음이 참조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望海亭과 臨海殿」,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1986, 291-292면 脚註 6)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거의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唐과 新羅에서의 관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의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내야만 했던 政治人으로서의 金志誠은 政治面에서 '無爲'의 俱現 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究極的으로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여 이 '無爲' 자체가 『老子道德經』와 『莊子』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어찌 논의되었는가를 알아내고자 全文을 면밀하게 檢索해보니, '無爲'가 '自然'과 내용상 함께 거론되는 대목은 『老子道德經』 중 유일하게 제64장이었다.[30] 그 전문 중 핵심 구절만을 國譯하여 인용하면 다음이다.

> "하고자 하는 것은 망치고 잡고자 하는 것은 잃는다. 이런 까닭에 (Ⅰ)聖人은 하고자 함이 없으니[無爲] 망침이 없고 잡으려는 게 없으므로 잃음이 없다. (…) 배우지 않음을 배워서 여러 사람들이 잘못한 바를 되돌리게 함으로써 (Ⅱ)萬物이 저절로 그러함[自然]을 도우면 (爲政者가)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다.[31]

이 『老子』 제64장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앞 대목에서는 '聖人의 無爲(Ⅰ)'를, 뒤 대목에서는 '萬物의 自然(Ⅱ)'을 이어서 거론하여서 '無爲自然'의 窮極的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만 이 '聖人의 無爲'는 이 세상 人間의 행위에 관한 것에 반해, '萬物의 自然'은 天下 萬物의 작용에 대한 것이기에, 인간 세계의 파란만장한 정치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無爲'에 누구나의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일 터이다. 따라서 金志誠의 경우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이 '無爲'의 俱現된 행위 자체를 현실적인 天下 統治와 연결을 시켜 언급한

---

30) 『老子』와 『莊子』 전체를 정밀하게 '逐字逐句' 즉 '한 글자 한 문구씩' 索引 작업을 해보았다. '逐字逐句'의 풀이에 대해서는 『中韓辭典』 초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全面 改訂, 2006, 2653면 참조. 그 결과 『老子』에는 '無爲'가 10번 나오고 '自然'이 5번 나올 뿐, '無爲自然'은 1번도 나오지 않는다. 『莊子』에서도 '無爲'와 '自然'이 각각 7번씩 나오지만, 역시 '無爲自然'은 1번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無爲'와 '自然'이 내용상 함께 거론되는 대목은 바로 『老子』 제64장뿐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31) 『老子道德經』 제64장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국역은 밑줄을 그은 부분만 하여 혼잡을 피하고자 하였다. "其安易持, 其未兆易謀, 其脆易破, 其微易散.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1)爲者敗之, 執者失之. 是以聖人無爲, 故無敗; 無執, 故無失.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愼終如始, 則無敗事.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2)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 국역은 김경수 역주, 『노자역주 老子譯註』, 문사철, 2011, 745-755면; 문성재 옮김, 『처음부터 새로 읽는 노자 도덕경』, 책미래, 2014, 359-360면 참조.

句節이 "無爲而無不爲"로, 이 구절이 『老子道德經』에는 第37章과 第48章에 각기 1회, 도합 2회 나오는 것에 비해, 『莊子』에는 4번 나오는 것[32]으로 조사된다.[33] 하지만 정작 '無爲'를 天下 統治와 연결을 시켜 언급하고 있는 것은 『老子道德經』 제48장의 '無爲無不爲 取天下'와 제37장의 '無爲而無不爲'·'天下將自正' 뿐이다. 그중에서도 우선 괄목하고자 하는 대목은 48章의 그것으로, 이에는 특히 '取天下'가 2번이나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 學을 행하는 자는 날로 늘어나고 道를 행하는 자는 날로 줄어든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서 無爲[하지 않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無爲하면 不爲[하지 못함]가 없게 된다. 天下를 다스림은 항상 無事[아무런 일이 없음]로써 해야 하며, 그것이 有事[일이 있음]에 이르면 天下를 다스리기에 부족하다.[34]

48章에 2번 나오는 이 '取天下'의 '取'는 '治'의 뜻이며[35], 이는 곧 '無爲而治'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6] 그리고 이러한 48章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데에는 그보다 앞에 기술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

32) 『莊子』에 4번 나오는 구절 "無爲而無不爲"을 검색하여 그 篇名과 原文을 이해를 돕고자 圖表로 작성하여 제시해 보이면 다음의 [別表]와 같다.

[別表] 『莊子』의 '無爲而無不爲' 檢索表

篇名	原文
「至樂」篇	"故曰 天地無爲也 而無不爲也 人也孰能得無爲哉"
「知北遊」篇	"故曰 爲道者日損 損之又損之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也"
「庚桑楚」篇	"此四六者 不盪胸中則正 正則靜 靜則明 明則虛 虛則無爲而無不爲也"
「則陽」篇	"萬物殊理 道不私 故無名 無名故無爲 無爲而無不爲"

33) 鄭開, 「內聖外王: 黃老政治哲學的理論旨趣」, 『道家政治哲學發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9, 304-305면 참조.

34) 『老子道德經』 四十八章 原文은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無不爲. 取天下常以無事, 及其有事, 不足以取天下." 陳鼓應, 『老子注譯及評介』 修訂增補本, 北京: 中華書局, 1984; 重印, 2017, 203-205면; 최재목 등 옮김, 『(진고응이 풀이한) 노자』,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8, 252-254면 및 成玄英 지음, 최진석 등 옮김, 『老子義疏 도교, 불교와 만나다』, 소나무, 2007, 377-381면 참조.

35) 이 '取天下에 대해 河上公의 注에서 "取 治也. 治天下 常當以無事 不當勞煩也."라고 하였으며(원문은 [漢]河上公 [唐]杜光庭等 注, 『道德經集釋』 上, 北京: 中國書店, 2015; 重印, 2021, 65면 및 [漢]河上公注, 王卡 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3; 重印, 2016, 186면. 그리고 국역은 이석명 옮김, 『노자도덕경하상공장구』, 소명출판, 2005, 291면 참조), 陳鼓應, 앞의 책, 244면; 최재목 등 옮김, 앞의 책, 299면의 註釋에서도 '取, 治也'라고 하여 이를 취한 점을 參酌하였다.

36) 陳鼓應, 같은 책, 243-245면; 최재목 등 옮김, 같은 책, 297-299면 및 成玄英 지음, 최진석 등 옮김, 같은 책, 489-494면 참조.

37章의 '無爲而無不爲'·'天下將自正' 대목을 연계하여 검토함이 마땅하겠다.

> 道는 항상 無爲[하지 않음]여서 不爲[하지 못함]가 없다. 侯王[諸侯와 帝王]이 만약 이것을 지킬 수가 있으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변화하면서 욕심이 생겨나면, 나는 장차 鎭靜시키기를 無名[聖人]의 본디 그대로 하겠으며, 無名[聖人]의 본디 그대로 무릇 또한 장차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음으로써 진정시켜 天下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37]

이『老子道德經』39장에서 "道는 항상 無爲[하지 않음]여서 不爲[하지 못함]가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라고 說破한 후 그러면 "天下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天下將自正)"임을 闡明하였음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그 중간의 대목에서 "無名[聖人]의 본디 그대로(無名之樸)"를 2회에 걸쳐 말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럴 정도로 '無名' 즉 '聖人'의 '본디 그대로'를 강조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老子道德經』39장의 이 대목에서 이와 같이 '聖人'의 '본디 그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莊子』「逍遙遊」에서는 至人·神人·聖人을 거론하면서 간단명료하게 "故曰 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38]"을 제시함으로써 곧 "至人은 自他의 구별을 초월하며, 神人은 功績을 의식하지 않으며 聖人은 名聲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라고 일러 말한 것이라는 점[39]을 상기해야 한다.[40] 이 대목에서 거론한 至人·神人·聖人 가운데서도 특히 聖人과 관련하여 '名聲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이 그 핵심 중에서도 가장 그러하다고 想定된다.[41]

이는 곧 聖人은 모름지기 '無名' 곧 '名聲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야 함'에

---

37)『老子道德經』三十七章. 원문은 "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將不欲. 不欲以靜, 天下將自正."

38)「逍遙遊」原文 및 註釋은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앞의 책, 12면; 陳鼓應 注釋, 앞의 책 上, 2020, 18-22면 참조.

39) 李元燮 解說·譯, 앞의 책. 153-158면.

40) 陳志偉, 「"無己"與"無用": 從個體逍遙到天下秩序—≪莊子·逍遙遊≫的政治空間」, 陳贇·賴錫三 主編,『≪逍遙遊≫的文本·結構與思想』, 上海: 華東師範大學, 2022, 202-207면 참조.

41) 陳贇, 「≪莊子·逍遙遊≫的文本邏輯與思想結構」, 陳贇·賴錫三 主編, 앞의 책, 327면 참조.

치중하여야 하는데, 비록 '天下治'·'治天下'를 이룰지라도 '名聲을 얻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逍遙遊」篇 중 아래의 대목에서 그러한 점이 완연히 입증되므로 그렇다.

> 堯가 天下를 물려주려고 許由에게 말하였다. "해와 달이 떠오르는데도 횃불을 끄지 않으면 그 빛은 헛되지 않겠는가. 때를 맞춰 비가 내리는데 그래도 물을 대려고 한다면 너무 수고롭지 않겠는가. 그대가 擁立되면 천하가 다스려질 텐데, 그러나 내가 여전히 맡고 있으니 내가 스스로 살펴도 만족하지 못하겠소. 청컨대 그대가 天下를 맡아주시오."
>
> 許由가 말하였다. "그대가 天下를 다스려 천하가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는데, 내가 그대를 대신하는 것이 내가 장차 名聲을 얻기 위함인가요. 名聲은 實像의 賓이니 내가 장차 賓이 되기 위함인가요. 뱁새가 깊은 숲에 둥지를 트는 것은 하나의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고, 생쥐가 강물을 마셔도 제 배를 채우는 데에 지나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쉬십시오, 君主이시여! 내가 天下를 위해서 소용되는 바가 없습니다. 庖人[調理師]이 비록 부엌을 다스리지 못하더라도 尸祝[박수무당]이 술병과 도마를 넘어가서 대신하지는 않는 법입니다."[42]

이렇듯이 「逍遙遊」篇에서 '治天下'를 이루는 게 '實像의 賓'에 지나지 않는 '名聲'을 얻기 위함이 결단코 아님을 거듭 지적할 뿐만 아니라 '無名' 곧 '聖人은 名聲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야 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聖人之治'를 특히 강조하였고, 이것이 「天下」篇에서도 누차 강조하는 '聖人之治' 및 '內聖外王之道'와 결국에는 相通하는 바임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莊子』 「應帝王」篇의 명칭 '應帝王'에서 '帝王'은 '道를 體得하여 無爲·自然으로 天下를 통치하는 理想的인 帝王'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應帝王'이란 '帝王이 되기에 合當하다.'라는 뜻이고[43], 좀 더 풀자면 '자기의 마음조차도 잊고 自然의 변화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그러한 修養에 응하여 帝王이

---

42) 「應帝王」篇 원문은 "堯讓天下於許由曰, 日月出矣, 而爝不息, 其於光也, 不亦難乎! 時雨降矣, 而猶浸灌, 其於澤也, 不亦勞乎! 夫子立, 而天下治, 而我猶尸之, 吾自視缺然. 請致天下. 許由曰, 子治天下, 天下既已治也. 而我猶代子, 吾將爲名乎. 名者實之賓也. 吾將爲賓乎. 鷦鷯巢於深林, 不過一枝. 偃鼠飮河, 不過滿腹. 歸休乎君, 予无所用天下爲! 庖人雖不治庖, 尸祝不越樽俎而代之矣."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앞의 책, 12-14면; 陳鼓應 注釋, 앞의 책 下, 22-25면 참조.

43) 李元燮 解說·譯, 앞의 책. 243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44] 한마디로 이 「應帝王」篇에서는 '帝王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道[45]'에 대해서 說破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면면을 위주로 설정된 「應帝王」篇 중에서도 '無名人'—앞에서 이미 살핀 바대로 「逍遙遊」篇에서 '聖人無名'이라 했기에 의당 聖人을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과의 대화 형식을 취하여 '治天下'를 거론하고 있는 대목은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治天下'를 이루기 위한 '사물의 自然'에 대한 '順應'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어 특히 그러하다.

> 天根이 殷山의 남쪽에서 遊하다가 蓼水의 上流에 이르러 無名人을 만나서 물어보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無名人이 말하기를, "(…) 너는 어찌 ⓐ天下를 다스리는 일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려 하는거요?" 天根이 다시 묻자 無名人은 대답하였다. "너는 마음을 [無慾]淡泊한 [境地에 두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고요한 세계와 일치하게 하라. 萬物에 順應하며 스스로 그렇게 하여 私心을 허용하지 말라. 그러면 ⓑ天下는 다스려질 것이다."[46]

이 대목의 원문 "天根遊於殷陽" 가운데 '遊' 역시 「逍遙遊」篇 속에 보이는 "遊乎四海之外" 등의 '遊'와 마찬가지로 오직 莊子의 뜻을 가리키는 "逍遙遊" 즉 '無心之遊'이며, 이 '逍遙'는 곧 「天運」篇에서 老子의 말 속에서 "소요는 무위요(逍遙 無爲也).[47]"라고 한 바대로 '無爲'라고 새김이 온당할 것이다.[48] 그러므로 이 「應帝王」篇에서 '無名人'=聖人의 말을 통해 지목한 '天下를 다스리는 일(治天下ⓐ)'과 '天下는 다스려질 것(天下治ⓑ)'이라고 하는 바는 다름이

---

44) 김학주 옮김, 앞의 책, 206면.

45) 金達鎭 譯, 앞의 책, 102면.

46) 「應帝王」篇 원문은 "天根遊於殷陽, 至蓼水之上, 適遭無名人而問焉, 曰: 請問爲天下. 無名人曰: 去. 汝鄙人也. 何問之不豫也. 予方將與造物者爲人. 厭則又乘夫莽眇之鳥, 以出六極之外, 而遊無何有之鄉, 以處壙埌之野. 汝又何帛以ⓐ治天下, 感予之心爲. 又復問, 無名氏曰: 汝遊心於淡, 合氣於漠. 順物自然, 而無容私焉, 而ⓑ天下治矣."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앞의 책, 160-161면; 陳鼓應 注釋, 앞의 책 下, 235-237면 참조.

47) 「天運」篇 원문은 "逍遙, 無爲也. 苟簡, 易養也. 不貸, 無出也. 古者謂是采眞之遊.",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같은 책, 281면; 陳鼓應 注釋, 같은 책 中, 407-411면 참조. 다만 中華書局『莊子注疏』의 2020년 版本에서는 "逍遙 無焉也."라고 하였는데, '焉'字는 분명 '爲'의 誤植임이 분명하다.

48) 韓林合, 「體道境界之進一步描述」, 『虛己以游世: ≪莊子≫哲學研究』 修訂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4, 325-329면 참조.

아니라 「天地」篇에 보이는 '聖治' 및 「應帝王」篇에 보이는 '明王之治'[49] 등의 用語와 함께 '聖人之治' 그 자체의 俱現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싶다.

더욱이 이 '聖人之治'와 관련하여 인용문 중 밑줄 그은 부분 "萬物에 順應하며 스스로 그렇게 하여 私心을 허용하지 말라(順物自然 而無容私焉)"에서 특히 "順物自然"의 '順物'이 '無爲'와 相通하여 '人爲的인 게 없음'이라는 뜻으로 풀 수 있다고 보여, 이 '順物' 자체가 결국 '無爲'임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대목의 "順物自然"이 즉 "無爲自然"을 지향하는 것이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고 본다.

莊子의 이러한 「逍遙遊」篇과 「應帝王」篇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莊子가 '治天下'·'天下治'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聖人之治'를 거론하였음을 분명히 살필 수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莊子』「天下」篇에서 '內聖外王之道'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50] 이 '內聖外王之道'를 孔子가 직접 제기한 儒敎 核心思想의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실은 이는 莊子가 먼저 제기한 것이었다.[51] 따라서 이 '內聖外王之道'가 莊子의 道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며,[52] 廣義로는 莊子 자신의 人生哲學이자, 俠義로는 '明王之治'를 가장 이상적인 政治理念으로 삼고 '無爲而治'를 최고의 施政原則으로 설정한 莊子 자신의 政治哲學이라 하겠다.[53]

이렇듯이 '內聖外王之道'를 설파한 것 자체는 莊子가 '天下治'·'治天下'의 구현을 통한 이상의 실현을 究極的으로 지향했음을 드러내 주는 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莊子』의 「應帝王」을 위시해서 「天地」·「天下」 등 여러 篇 곳곳에서 보이는 '聖人之治'·'聖治' 및 '明王之治'도 '不治之治'·'無爲而治之治' 등과 같은 종류의 '治'로 莊子가 理想的인 '治'의 意味로 사용한 것이다.[54] 그러므로 『莊子』 「逍遙遊」篇과 「應帝王」篇에서 표방한 莊子 그 자신의 정치적 지향은 '治天下'之道 즉 '治世之道'에 설정되어 있었다고 여겨

49) 韓林合, 「人生問題之解決 (上): 體道過程」, 앞의 책, 182면 및 韓林合, 「社會問題之解決」, 같은 책, 436면 참조.
50) 李智福, 「"內聖外王"源流考略」, 『內聖外王: 郭子玄王船山章太炎三家莊子學勘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9면.
51) 隋思喜, 「從"修己治人"到"內聖外王"」, 『內聖外王 修己安人』,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14, 10-11면.
52) 韓林合, 「社會問題之解決」, 앞의 책, 443면.
53) 李智福, 「解釋與經典之間」, 앞의 책, 356면.
54) 韓林合, 「社會問題之解決」, 앞의 책, 439면.

진다.[55] 또한 莊子가 「天下」篇에서 표방한 이러한 '內聖外王之道'는 「應帝王」篇의 '爲天下'·'治天下'·'天下治'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조되었고, 「人間世」篇의 '內直外曲'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풀이될 수 있겠다.

요컨대 金志誠은 『老子道德經』의 '無爲無不爲 取天下'와 '無爲而無不爲'·'天下將自正' 대목을 섭취하여 그것이 곧 『莊子』 「逍遙遊」篇 및 「應帝王」篇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바의 '天下治'·'治天下'와 아울러 일맥상통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으로써 비록 그 자신이 현실 정치 세계에서는 六頭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여 悠悠自適을 꿈꾸며 '逍遙遊'를 실행할지라도 '應帝王' 즉 天下를 다스리기에 應當하게 후세에까지 길이 자신의 名聲을 남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君主가 아닌, 그래서 '無名人'으로서 '聖人'다운 면모를 지닌 帝王에게는 臣下로서의 道理를 다해야 한다는 思想을 지니고 있었다고 읽힌다. 한마디로 그는 『老子道德經』 및 『莊子』 「逍遙遊」篇 등을 섭렵한 이후 그 나름대로 '無爲而治' 體得과 그 現實 政治 世界에서의 俱現 그리고 자기 生涯 속에서의 實踐을 志向하는 姿勢를 견지하며 살았던 것 같다.

5. 結語: 金志誠 道教思想의 특징과 그 思想史的 意味
—金仁問과의 비교를 통한 把握—

金仁問(629-694)과 金志誠(652-720)은 新羅가 三國統一을 달성하기 전후한 시대, 그것도 이 세상에서의 전체 생애 중 42년이나 중첩이 되는 기간에 함께 생존했던 인물이었기에, 그들의 생애에는 2가지의 普遍性이 있었다. 첫째로는 姓氏가 金氏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唐에서 宿衛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보편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서로 個別性을

55) 陳鼓應은 "莊子는 어떠한 현실의 통치에도 반대하는 無治主義(陳鼓應, 「序」; 앞의 책, 268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오히려 莊子는 '天下治'·'治天下'의 구현을 통한 이상의 실현을 지향하는 '治世之道'에 입각하고 있었다고 함이 的確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莊子』 「應帝王」篇에서 표방한 莊子 그 자신의 정치적 지향은 '治天下'之道 즉 '治世之道'에 설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莊子』 「應帝王」篇에서 표방한 莊子 그의 정치적 지향은 '治天下'之道 즉 '治世之道'에 설정되어 있다고 함이 옳을 듯하다. 馬德鄰, 「≪應帝王≫: 莊子的治世之道」, 『莊子哲學的問題和方法』, 上海: 上海三聯書店, 2017, 219-235면 참조.

띠고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56]

이러한 이들의 生涯에 있어서 파악되는 보편성과 개별성의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다. 아래의 [表 4]이다.

[表 4] 金仁問・金志誠 生涯의 普遍性・個別性 比較表

區分			金仁問	金志誠
普遍性	姓氏		金氏	
	經歷	唐	宿衛	
個別性	最高職位	唐	新羅王	尙舍奉御
		新羅	太大角干 追贈	執事侍郎
	身分	貴族	眞骨	六頭品

그들이 비록 唐에서 宿衛를 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였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 職位에서는 격차가 심하였다. 太宗武烈王의 2子였던 金仁問은 신라가 자국 영토에서 唐을 내몰자, 唐에서 그를 일방적으로 新羅王에 봉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고 훗날 사망하였을 때 太大角干을 追贈받았던 眞骨이었다. 이에 비하여 金志誠은 唐에서 尙舍奉御의 직책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책은 『唐會要』 卷9下 「雜郊議下」 등의 기록에 의거하면, 皇室에서 齋戒를 지낼 때 동참하는 관직이어서 그리 비중이 있는 게 아니었던 듯하며, 귀국 후에는 執事部의 侍郎職을 지내다가 致仕한 六頭品이었다.

한편 金仁問과 金志誠은 思想的인 면에서는 儒佛道를 涉獵하였다는 普遍性을 띠고 있다. 이 儒佛道 섭렵의 사실에 있어서 보편성은 구체적으로는 첫째, 儒教와 관련해서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배워 儒家의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점, 둘째 그랬으면서도 한편으로는 '莊老' 곧 『莊子』와 『老子道德經』을 수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莊子』를 『老子道德經』 보다 중시하였다는 점 등이 그러하였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보편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서로 個別性을 띠고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이들의 宗教思想에 있어서 파악되는 보편성과 개별성의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더니 [表 5]와 같게 되었다.

56) '보편성'・'개별성'의 歷史學的 槪念에 대해서는 노용필, 「이기백한국사학의 보편성 추구와 개별성 파악」, 『이기백한국사학기초연구』, 일조각, 2016, 특히 313-321면 참조.

[表 5] 金仁問・金志誠 宗教思想의 普遍性・個別性 比較表

<table>
<tr><td colspan="3">區分</td><td>金仁問</td><td colspan="2">金志誠</td></tr>
<tr><td rowspan="5">普遍性</td><td colspan="2">思想</td><td colspan="3">儒佛道 涉獵</td></tr>
<tr><td>儒教</td><td>史料</td><td>‘幼而就學 多讀儒家之書’</td><td colspan="2">(同一)</td></tr>
<tr><td rowspan="2">道教</td><td>史料</td><td rowspan="2">‘兼涉莊老浮屠之說’</td><td>‘兼愛莊周玄道
日日覽逍遙之篇’</td><td rowspan="2">‘披閱五千言之道德’</td></tr>
<tr><td>‘慕莊老之逍遙’</td></tr>
<tr><td>經傳</td><td colspan="3">『老子道德經』</td></tr>
<tr><td colspan="4">『莊子』「逍遙遊」・「應帝王」篇</td></tr>
<tr><td rowspan="4">個別性</td><td rowspan="4">佛教</td><td rowspan="4">史料</td><td rowspan="4">‘兼涉莊老浮屠之說’</td><td colspan="2">‘仰慕無著眞宗 時時讀瑜伽之論’ /
‘志重眞宗 希無著之玄寂’ /
‘窮研十七地之法門 壞色空而俱滅’</td></tr>
<tr><td colspan="2">‘報德慈親’</td></tr>
<tr><td colspan="2">‘酬恩聖主’</td></tr>
<tr><td colspan="2">‘塵外之心無搖’</td></tr>
</table>

이 가운데서 道教思想에서 金仁問과 金志誠이 지닌 뚜렷한 보편성은『老子道德經』및『莊子』를 아울러 涉獵하면서도『莊子』를『老子道德經』보다 더욱 重視하고 選好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측면은 金仁問에 관한 文獻 기록에도 ‘兼涉莊老浮屠之說’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金志誠에 관한 金石文 기록 중에서도 ‘兼愛莊周玄道 日日覽逍遙之篇’ 대목에서는 ‘莊周玄道’를 내세웠으며 또한 ‘慕莊老之逍遙’ 대목에서는 ‘老莊思想’에 관해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老莊’이라 표기함과는 달리 ‘莊老’라 적고 있는 사실에서 여실히 입증되는 게 거의 틀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이들이 唐 滯在 중의 정치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나날의 일상생활 속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바가 여실히 반영되었던 듯싶다. 그들이 唐에서 활동하던 그 당시는 여느 시기보다도 극히 黃老學이 尊崇되어 정치적으로 皇帝가 老子의 後光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여 專橫을 일삼던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新羅人으로서의 反感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推論된다.

그리고 道教思想에서 金仁問과 金志誠이 지닌 보편성은, 그러한『莊子』의

내용에 관련한 受容에 있어서 두 가지 점에 있었던 것 같다. 첫째는 「逍遙遊」·「人間世」·「山木」篇의 '無所可用' 및 「人間世」篇의 '無用之用' 理解, 둘째는 「山木」篇의 '虛己以游世' 理解에 있었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 첫째, '無所可用'은 『莊子』 原文을 全數 調査해보니 「逍遙遊」·「人間世」·「山木」篇에서 각기 1회씩 찾아지는데, 「逍遙遊」篇의 '無所可用'은 "큰 나무를 가지고도 그것이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지만(有大樹 患其無用), (…) 아무 데도 쓰이는 바가 없으니(無所可用)[57]" 대목에서, 「人間世」篇의 '無所可用'은 "이것은 쓸모가 없는 재목의 나무라서 쓸 데가 없는(是不材之木也 無所可用)[58]" 대목에서 또한 「山木」篇의 '無所可用'은 "큰 나무를 보았는데 (…) 쓸 데가 없다[見大木 (…) 無所可用][59]" 대목에서 찾아진다. 또한 「人間世」篇의 '無用之用'은 "사람들은 다 쓸모있는 것을 쓸 줄만 알지, 쓸모없는 것의 쓰임새는 알지 못하는구나!(人皆知有用之用 而莫知無用之用也)[60]" 대목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逍遙遊」篇 등에서 공통으로 검색되는 이 "大樹"는 莊子가 道에 관하여 比喩해서 한 말이며[61], 莊子는 이렇듯이 '不材之材' 및 '無用之用' 등을 거론하면서 강조하는 論調를 펼침으로써 우리가 '無用之材'가 되기를 바라며 '無所可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바라고 하겠다.[62]

한편 둘째로, 道教思想에서 金仁問과 金志誠이 지닌 보편성은 「山木」篇의 '虛己以游世' 理解에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이 「山木」篇의 "人能虛己以遊世 其孰能害之" 중 "虛己"는 즉 '忘己' 혹은 '無己' 곧 몸과 마음을 모두 놓아 주는 것이며, 따라서 "虛己以遊世"는 몸과 마음의 각양각색 束縛을 벗어나 완전히

57) 「逍遙遊」篇 원문은 "今子有大樹, 患其無用. (…) 不夭斤斧, 物無害者, 無所可用, 安所困苦哉."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앞의 책, 21-22면; 陳鼓應 注釋, 앞의 책 上, 35-37면 참조.

58) 「人間世」篇 원문은 "是不材之木也, 無所可用. 故能若是之壽."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같은 책, 21-22면; 陳鼓應 注釋, 같은 책 上, 35-37면 참조.

59) 「山木」篇 原文은 "莊子行於山中, 見大木, 枝葉盛茂, 伐木者止其旁而不取也. 問其故, 曰: 無所可用. 莊子曰, 此木以不材得終其天年!"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같은 책, 359면; 陳鼓應 注釋, 같은 책 中, 534-538면 참조.

60) 「人間世」篇 原文은 "山木自寇也, 膏火自煎也. 桂可食, 故伐之; 漆可用, 故割之. 人皆知有用之用, 而莫知無用之用也."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같은 책, 101-102면; 陳鼓應 注釋, 같은 책 上, 156-157면 참조.

61) 韓林合, 「體道境界之進一步描述」, 앞의 책, 407면.

62) 韓林合, 「人生問題之解決 (下): 體道境界」, 같은 책, 244-248면.

느슨해진 상태를 의미한다.[63] 또한 「秋水」篇 "曲士不可以語於道者 束於教也"에서 지적하듯이 "教에 束縛된" "曲士에게 道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모두 완전히 느슨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虛己以遊世" 대목이야말로 莊子가 理想으로 여긴 인생 상황으로, 「人間世」篇 "아주 다니지 않고 자취를 끊기는 쉬우나 다니고서 자취를 남기지 않기는 어렵다(絶迹易 無行地難)" 부분에 대해서 郭象이 "다니지 않기는 쉬우나 가고자 하면서 땅을 밟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으며, 하지 않기는 쉬우나 하고자 하면서 心性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룰 수 없다(不行則易 欲行而不踐地不可能也. 無爲則易 欲爲而不傷性不可得也)."라고 注釋을 붙인 내용 중 "가고자 하면서 땅을 밟지 않는 것(欲行而不踐地)"이라고 한 바[64]와 꼭 같은 것이다.[65]

金仁問은『莊子』의 이러한 대목들을 항시 마음속에 새기며 그 역시 자기 자신을 이러한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無用'之用)" 즉 '쓸모없는 것의 쓰임새'로 여기면서 한껏 自尊心을 다지면서 그 나름대로 信念을 堅持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6] 그래서 「人間世」篇 '無用之用'의 바로 앞부분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내 가는 길을 찌르지 말아라! 돌아가네. 모퉁이를 돌아가네. 내 다리를 찌르지 말아라![67]"라고 하는 孔子가 楚에 갔을 적에 미치광이 接輿가 孔子의 門 앞에서 불렀던 노래를 되뇌면서 자신 나름 지닌 信念의 堅持를 한시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나름대로 信念을 22년에 달하는 기나긴 세월의 在唐 시절 가운데 특히 그 말년에 이를수록 一貫되게 堅持하는 자세야말로 金仁問 道教思想의 個別性이었을 법하다.[68]

반면에 金志誠이 품었던 道教思想의 개별성으로는 '披閱五千言之道德' 즉 五斗米道

63) 韓林合, 「人生問題之解決 (上): 體道過程」, 같은 책, 144면 및 158면.
64)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앞의 책, 82면.
65) 韓林合, 「人生問題之解決 (上): 體道過程」, 앞의 책, 120면.
66) 陳贇, 「"至人無己"與"無用之用"」, 『自由之思: ≪莊子・逍遙遊≫的闡釋』,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20, 402면 참조.
67) 「人間世」篇 原文은 "迷陽迷陽, 無傷吾行! 郤曲郤曲, 無傷吾足!" [晉]郭 象 注, [唐] 成玄英 疏, 앞의 책, 101면; 陳鼓應 注釋, 앞의 책 上, 154-156면 참조.
68) 韓林合, 「莊子之"無用之用"論題簡釋」, 陳贇・賴錫三 主編, 앞의 책, 182-184면 참조.

계열의 五千卷本『老子道德經』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두게 되었던 문제에 있었다고 본다. 金志誠의 이러한 五斗米道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이미 在唐 시절 그것이 확산되던 唐의 당시 실정을 체험하였던 게 계기가 되었으나, 新羅에 돌아와 中堅 官吏로서 國政을 수행하면서 本國에도 唐이나 같은 시기의 高句麗 못지않게 新羅의 경제적으로 곤궁한 농민 및 신분적으로 미천한 奴婢 등의 所謂 民衆 역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목격하고 파악하였던 게 결정적인 배경의 하나로 작용하여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그는 6두품 출신으로서 執事侍郎職을 수행하면서도 그랬지만, 그 직책을 물러났다가, 이미 앞서 살폈듯이 「彌勒菩薩造像記」에만 보이는 바대로 "다시 草廬에 王命을 내리니 都城 가까이에서의 바쁜 직무를 맡았다."라고 했음에서 알 수 있는, 그가 맡았다고 하는 '都城 가까이에서의 바쁜 직무'라고 함도 國王의 密命을 받아 궁핍한 민중의 생활 개선을 위한 방안의 創案이었을 성싶다. 그래서 金志誠은 이 무렵 五斗米道 계열의 五千卷本『老子道德經』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살펴진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살핀 바를 토대로, 金仁問과 金志誠이 道敎思想에서 지닌 普遍性과 個別性의 比較表를 작성하였다. 아래의 [表 6]이 그것이다.

[表 6] 金仁問·金志誠 道敎思想의 普遍性·個別性 比較表

區分		金仁問	金志誠
『老子』	普遍性	『老子道德經』	
	個別性	×	'披閱五千言之道德'
『莊子』	普遍性	「逍遙遊」·「人間世」·「山木」篇의 '無所可用' 및 「人間世」의 '無用之用'	
		「山木」篇의 '虛己以游世'	
	個別性	「人間世」의 '無傷吾行·無傷吾足'	×

이 세상에서 「逍遙遊」·「人間世」·「山木」篇의 '無所可用'도, 「人間世」篇 마지막 대목에서의 '無用之用' 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現世에 대한 金志誠의 落望은 결국에는 그를 道敎의 隱遁에 心醉하는 한편으로는 佛敎의 阿彌陀信仰 및 彌勒信仰에 執着하는 데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으로 가늠된다. 이러한 金志誠의 전반적인 心理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그가 건립한 甘山寺의 阿彌陀佛과 彌勒菩薩像으로 形象化되었으며, 그가 지닌 道敎思想의 實狀 역시 金石文으로 「阿彌陀佛造像記」·「彌勒菩薩造像記」에 眞率하게 담겨 오늘날까지도 '있었던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金石文 原文 및 國譯—
金南允,「甘山寺 彌勒·阿彌陀佛 造像記」,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신라2·발해편),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
金煐泰,『三國新羅時代佛教金石文考證』, 民族社, 1992.

—唐 中宗·則天武后—
呂思勉,「中宗復位」,『隋唐五代史』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重印, 2017.
外山軍治,「女帝出現」,『則天武后: 女性と權力』, 東京: 中公新書, 1966.
_____, 박정임 옮김,「측천무후의 여파」,『측천무후』, 페이퍼로드, 2006.
雷家驥,「神龍政變與大周覆亡」,『武則天傳』, 北京: 人民出版社, 2008.
王洪軍,「千古一女皇」,『武則天評傳』,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10.
氣賀澤保規,「武后殘影」,『則天武后』, 東京: 講談社, 2016.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Melbourn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55; Vancouver: Centre Univ. of British Columbia, 1968.
X. L. Woo, *Empress Wu the Great*, New York: Algora Pub., 2008.

—道教史—
窪德忠, 西順藏 編,『中國文化叢書 6 宗教』, 東京: 大修館書店, 1967;
_____, 조성을 옮김,『중국종교사』, 한울, 1996.
牟鍾鑒,『中國道教』,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96;
_____, 이봉호 옮김,『중국도교사—신선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 예문서원, 2015.

—『老子』·『莊子』—
陳鼓應,『老莊新論』, 香港: 中華書局, 初版, 1991; 再版, 1995.
韓林合,『虛己以游世: ≪莊子≫哲學硏究』修訂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4.
馬德鄰,「≪應帝王≫: 莊子的治世之道」,『莊子哲學的問題和方法』, 上海: 上海三聯書店, 2017.

—『莊子』「逍遙遊」篇—
王 博,「≪逍遙遊≫」,『莊子哲學』(第2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馬德鄰,「≪逍遙遊≫: 作爲哲學的生活方式」,『莊子哲學的問題和方法』, 上海: 上海三聯書店, 2017.
劉笑敢,〈逍遙論〉,「學說篇」,『莊子哲學及其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修訂版,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20.

—金志誠—
末松保和,「甘山寺彌勒尊像及び阿彌陀佛の火光後記」,『朝鮮』211, 朝鮮總督府, 1932.
_____,『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954.
_____,『新羅の政治と社會』下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4, 東京: 吉川弘文館, 1995.

文明大,「新羅 法相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甘山寺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중심으로—」上,『歷史學報』62, 역사학회, 1974.
李基東,「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震檀學報』50, 진단학회, 1980.
_____,『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李基白,「統一新羅와 渤海의 文化」,『韓國史講座』Ⅰ 古代篇, 一潮閣, 1982.
_____,「儒教와 道教」,『歷史都市 慶州』, 悅話堂, 1984.
_____,「望海亭과 臨海殿」,『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김영미,「聖德王代 專制王權에 대한 一考察—甘山寺 彌勒像·阿彌陀像銘文과 관련하여—」,『梨大史苑』22·23, 이화여대 사학회, 1988.
權悳永,「遣唐使의 구성과 운영」,『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구문회,「감산사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 조상기를 통해 본 7-8세기 신라 귀족의 삶—金志誠의 일생과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생활문물연구』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Abstract】

Silla Kim Ji-sŏng's the Acceptance of Taoism and Its Characteristics

Noh, Yong-pil*

Kim In-mun and Kim Ji-sŏng lived at the same time for 42 years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by Silla and yet there we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ir social status. Kim In-mun, who was member of the royal family of True-Bone (眞骨) as the second son King Taejong Muyeol, was once designated as the king of Silla by China's Tang Dynasty, though later withdrawn. After his death, he was given with the highest official rank. On the other hand, Kim Ji-sŏng had the duty of joining purification rituals among the royal families of Tang and after his return to Silla, he served as the vice minister of the office, rising to the high ranks of head-rank six (六頭品) and retired.

Nevertheless, in terms of their ways of thinking, they were common in mastering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like intellectuals of Tang then. Firstly, in the field of Confucianism, they read lots of Confucian books as they learned from young. Secondly, in the field of Taoist Scriptures, they accommodated and enthusiastically read *Lao Tzu's Tao-te-ching* and thought highly of the book. That said, they were different in others. Particularly in terms of Taoism, while reading *Zhuangzi*, Kim In-mun emphasized the chapter of "All Under Heaven" (天下), whereas Kim Ji-sŏng emphasized that of "Carefree Wandering" (逍遙遊).

The characteristics of Taoism of Kim In-mun and Kim Ji-sŏng as such seems to come from their different social positions. Kim In-mun might have put emphasis on the chapter of "All Under Heaven" of *Zhuangzi* as he wanted to learn properly the context of Chinese thoughts as one of royal family members who kept close relationship with Tang's royal families as well as the intellectuals. On the other hand, Kim Ji-sŏng once had the difficulty of being "hardly exempted from criminal law while try-

* Director, Research Inst. for Korea History.

ing to correct the world without any particular tactic". Eventually, he rose to the highest official post as head-rank six before retiring. And so he might have put emphasis on the chapter of "Carefree Wandering", which pursued the ideal of free and easy life.

Keywords: Silla, Kim Ji-sŏng, Kim In-mun, Tang, Taoism, *Lao Tzu, Zhuangzi*.

접수일: 2022.09.15.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25.